▣ 미국 서비스 부문의 해외 아웃소싱 논란

□ 미국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아웃소싱 현황

○ 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, 미국의 경우 2004년 한해 동안 40만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아웃소싱 될 것으로 전망됨.
-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된 2015년경에는 330만개의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해외 아웃소싱될 것으로 전망
- 이 같은 예측이 맞다면,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미국의 일자리 감소분은 연간 25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

○ 아웃소싱 직업의 상당수는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차지하고 있음.
- 금융 애널리스트, 의료 기술자, 법무사, 컴퓨터 및 수학 전문가 등
-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국은 미국과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.

□ 미국 기업들의 아웃소싱 추세

○ 서비스 관련 해외 아웃소싱에 대해서만큼은 다국적기업보다 하이테크 벤처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.
- Forrester의 조사에 따르면, 145개 하이테크 기업 중 15%가 기업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해외 아웃소싱을 추구
- 특히 벤처 투자가들이 투자 대상기업의 20-25% 가량에 대해 해외 아웃소싱 요구하는 등 주요 중간다리 역할 수행
  . 아웃소싱 제공처 알선 등
  . Kleiner Perkins Caufield & Byers, Sevin Rosen Funds 및 Norwest Ventures 등 거대 벤처 캐피탈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30% 가량이 해외 아웃소싱 중이며 이 같은 비중은 지속 상승 중이라고 밝힘.

○ 미국 기업들이 서비스 일자리를 해외 아웃소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저하•사내 핵심역량의 가용성 확대를 통해 제품 개발 사이클 단축• 해외 고급 인력 발굴 등임.

○ "아웃소싱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"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 경제전문가, 투자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임.

□ 서비스 부문 아웃소싱의 경제적 효과

○ 개별기업에 있어 아웃소싱의 비용상의 효과는 비교적 가시적으로 들어나고 있음. McKinsey의 평가에 따르면 해외 일자리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50%에 이른다고 함.

○ 한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해외 아웃소싱은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. 일례로, 미국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IT 부문에서 해외

아웃소싱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, 1995년-2000년 사이 연간 경제성장률은 0.3%p씩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.

- 기업들이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인플레 압력 하락 → 연준리에서도 이자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등, 유연한 통화정책 구사 가능 → 경제 고성장을 촉진 → 다시금 고용 증가로 연결

○ 그러나 해외 아웃소싱은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. 해외 아웃소싱이 비록 기업주주나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을 줄 수 있으나,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의 증가라는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임. 또한 화이트 칼라 전문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향 조정될 위험성도 안고 있음.

□ 향후 전망

○ 서비스 부문 해외 아웃소싱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.

-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외 일자리 아웃소싱 추구 기업에게 사전 계획을 공개토록 하는 등의 규제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.
- 이에 반해 부시 대통령 등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.
-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 해외 아웃소싱은 기업 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채용될 것으로 보임.

(문의처 : 워싱턴무역관 한정희 h2j@kotra.or.kr)